

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, '농식품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' 주제 특강

자유농업경제포럼, (사)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, 자유기업원 공동주최
초청강연 연사로 농어업인, 기업인 등과 농어업 발전방안 집중 논의

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'농어업위') 장태평 위원장은 18일 자유농업경제포럼, (사)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및 자유기업원이 공동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'농식품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'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.

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농정기조가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으로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, 농어업위도 농어업 안팎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가교가 되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.

본 강연에서는 농업이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그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 특히, 한국과 일본의 논벼 생산비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농가 경영비 중 토지용역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지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. 그 밖에도 농업·농업인 정의 재정립, 농업인 소득 정보체계, 농업 금융 등 농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.

또한 최근 글로벌 농업생산체계에 일고 있는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파괴적 혁신 사례와 기술을 현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내 농업 스타트업 및 협동조직 등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다. 그러면서 농업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농어업에 첨단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“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

1천억 달러를 목표로 반도체, 석유제품 등 비농업 품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농식품산업을 함께 힘차게 만들어가자”고 제안했다.

※ 자료사진 별첨

담당 부서	농어업정책팀	책임자	팀 장	손영준 (02-6260-1251)
		담당자	농업연구관	지상윤 (02-6260-1222)

